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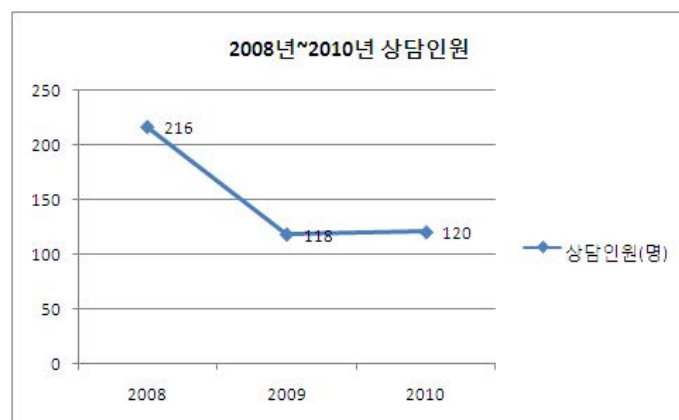
2010년 주요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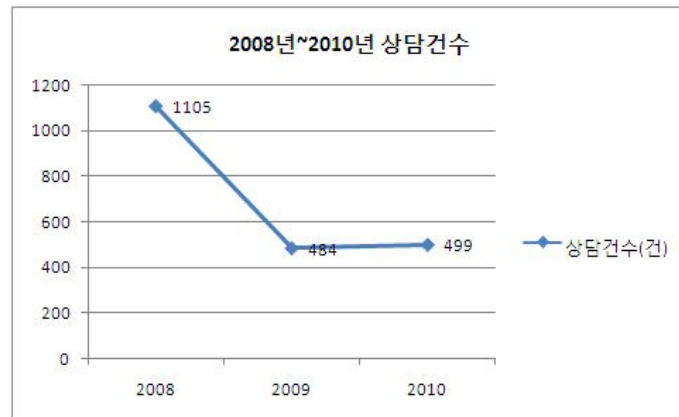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성매매와 관련한 상담은 단지 법으로 규정된 ‘성매매피해’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생계와 생활, 그리고 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매년 수치화된 상담현황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해주는 성매매 피해지원에 대한 제도적 한계와 보완되어야 할 지원방향에 대한 힌트를 생산하고자 함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0년 주요 상담현황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온 상담소 [이룸]의 상담통계 추이와 비교할 때 그다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성매매 구조의 문제 상황은 여전히 주로 빚과 생계, 전업의 문제로 귀착된다. 덧붙여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법률문제보다 장기적인 생계수단의 부재가 안정적인 전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시행될 시기의 피해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성매매 업소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주와 사채업자들의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종속 형태가 더 복잡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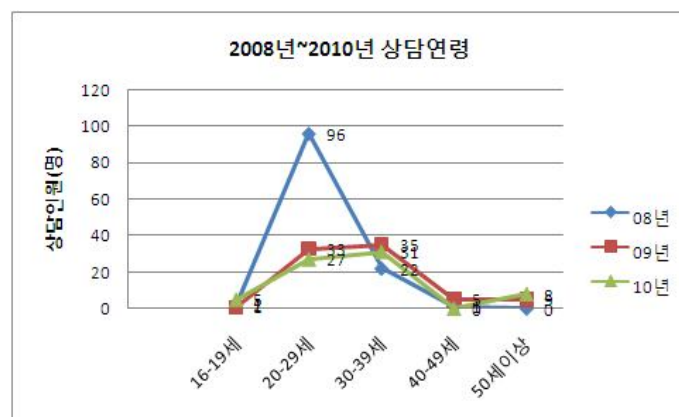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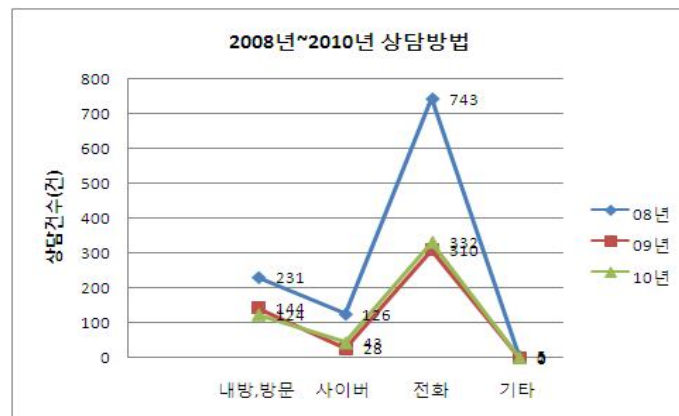
1. 2010년 주요 상담현황

2010년 [이룸]에 상담을 의뢰한 인원은 총 120명이고, 이들에 대한 상담건수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담인원과 상담건수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2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8년에 진행한 ‘유흥업소, 빚과 관련한 네이버 지식IN 질문에 답글달기’와 같은 온라인 상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적으로 4-5회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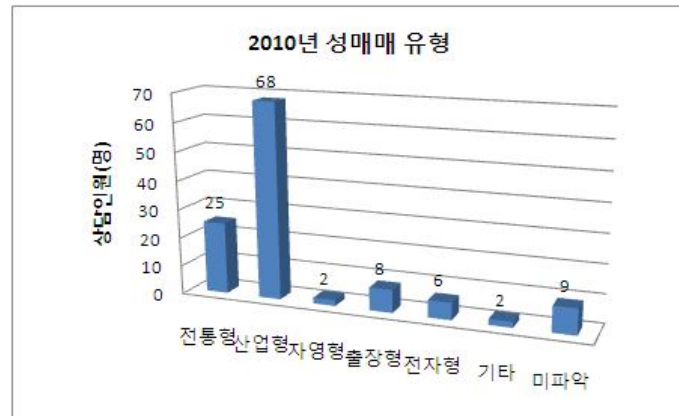


상담방법으로는 2010년 내방·방문상담(면접상담)이 124건, [이룸]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이 43건, 전화상담이 332건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의뢰인의 연령은 대부분이 20-30대로 나타났는데, 10대나 20대의 경우 성매매 구조 안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업주의 협박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로 보여지며, 30대는 성매매 구조 안에 진입했던 여성들이 전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탈성매매와 빚 청산을 하고자 상담소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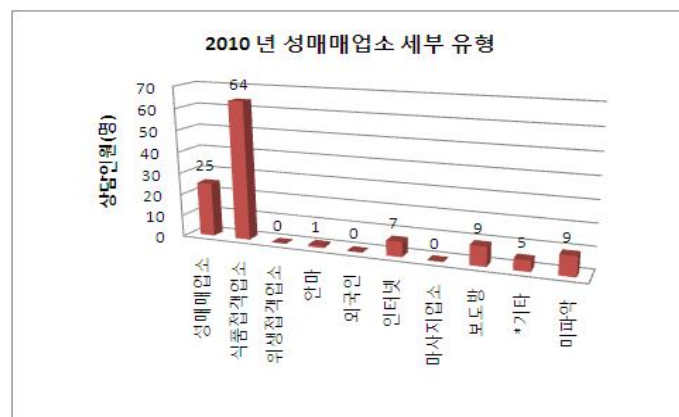


성매매 형태 분포는 룸살롱, 단란주점, 다방, 안마시술소 등 다양한 업소가 포함된 산업형 성매

매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업소 혹은 업주에 고용된 상태에서 성매매만을 하는 형태, 즉 미아리, 청량리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가 많았고, 이 외에도 보도방과 같은 중간 매개체를 통한 출장형 성매매와 인터넷을 통한 1:1성매매(전자형, 자영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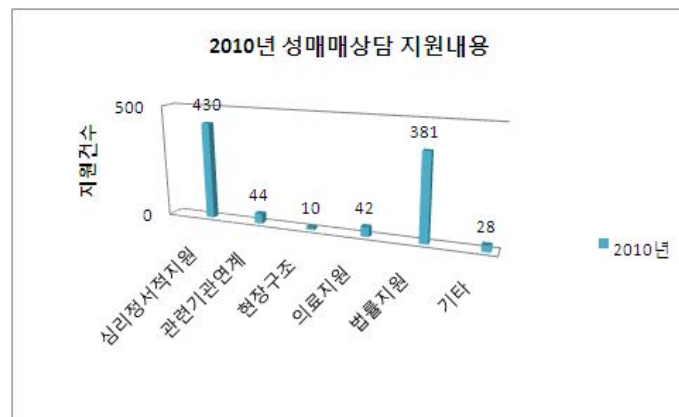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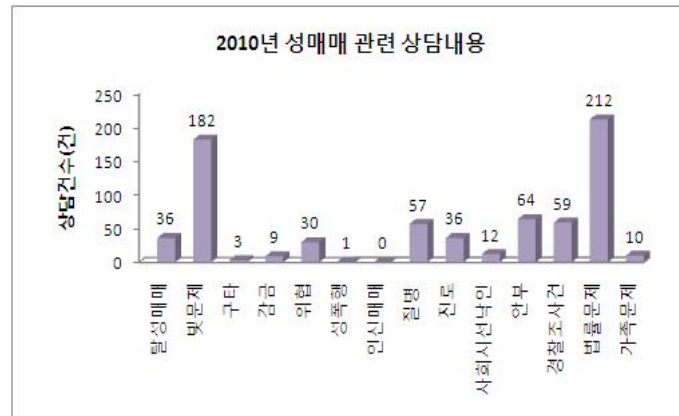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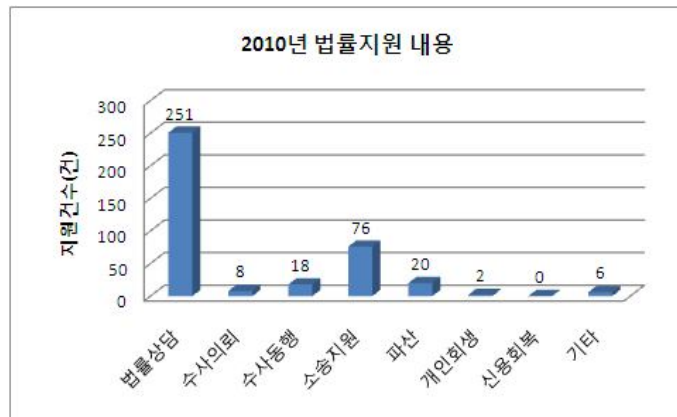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업소 세부 유형에서 보면, 여전히 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을 의미하는 식품접객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또는 맥양주집 등의 형태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주된 업소 형태이지만, 1:1 성매매와 같이 비업소 종사여성의 상담도 주목할 만하다. 기타 내용으로는 비업소 종사여성, 일본 성매매, 노래빠, 오피스텔 등의 업소에서 일하다 상담을 의뢰한 경우들인데, 새로운 형식의 업소 형태로 전환하는 성매매 업소들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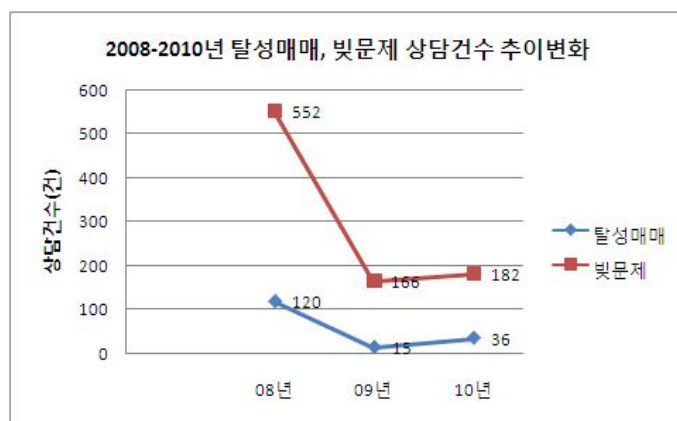
2. 2010년 성매매 관련 상담과 지원내용

상담내용은 여전히 빗 문제가 가장 많고 빗과 관련한 법률문제, 즉 성매매 고소, 성매매 선불금으로 인한 사기죄 피고소, 선불금과 관련한 대여금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산과 개인회생 등의 법률문제가 주요 상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률문제는 기존에 경찰조사나 성매매 고소라는 단편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선불금과 관련한 민사상의 문제, 파산과 개인회생 등과 같이 성매매에서 다른 직업으로의 안정적인 전업을 위해 필요한 법률문제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 구조 안에서 여성이 종속되는 방식이 감금, 구타, 위협, 성폭행 등과 같이 인신을 구속하는 폭력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법률망을 이용한 다각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 안정적인 전업을 방해하는 사회적 낙인과 시선, 질병, 진로에 대한 상담이 주목되는데, 이는 성매매 관련한 상담이 기존에 법률적인 위기상담에서 장기적인 시각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폭행, 감금과 같은 당장의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이 2008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여전히 빚 문제가 주요 상담내용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볼 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담으로는 쉼터 입퇴소에 대한 상담, 임대주택 등 주거 문제, 임신중절이나 우울증 심리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절도 및 갈취, 임금체불, 살해, 사망사건 등 과 같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상담이 있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다양한 전문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요했고, 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정보나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시설을 안내하는 것도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3. 2010년 상담통계를 통해 분석한 성매매 동향

다각적인 법률지원

상담소에 의뢰되는 법률 상담은 성매매피해에 대해 업주를 고소하고 처벌하게 하는 것보다는 성매매를 전제로 오고간 금전거래나 빈곤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린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주된 내

용이다. 여성들에게 성매매방지법이 활용되는 부분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는 조항인데, 이를 통해 성매매 구조 안에서의 빚을 청산하거나 과거에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기도 한다. 이전에 법률상담이 주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사례가 다수였다면, 점점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등과 같은 소송이나 형사고소로 해결될 수 없는 대여금청구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민사 소송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빚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라는 발상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탈성매매와 전업을 위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항목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탈성매매 이후에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전 성매매 업소에서의 선불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들을 보면, 짧은 기간 동안의 성판매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의 전생애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구조안의 확장되거나 변화된 착취방식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판매 여성의 위치와 변화 : ‘피해’의 이름으로 접속되지 않는 여백들

겉으로 보기에 성판매 여성이 유흥업소 취업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거나 성산업의 분화 속에서 선택지가 다양해졌거나, 여타 비정규직 노동에 비해 상대적인 고소득의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등과 같은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드러나는 성판매 여성들의 위치는 여전히 성거래 속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 형태의 외양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성산업 내부의 본질적인 상황에 대한 변화는 그다지 체감할 수 없다. 특히 성산업 내에 불공정한 거래 속에서 상당부분의 피해나 고통을 여성들이 떠안고 있는데 지원활동의 축이 이 지점으로 선회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법률상 ‘성매매로 인한 피해’로 접속되지 않는 여백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성판매자로 간주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범위까지 접속해야 하지 않을까. 또 성매매가 여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계수단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의 생계수단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 탈성매매가 단순히 성매매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는 측면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이동으로서, 생계수단의 쟁취라는 접점을 창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업소 형태의 변화, ‘신변중’이라고 구분되는 업소들

2010년 전후로 키스방, 노래빠, 파티시, 대딸방, 오피스텔 성매매 등과 같이 소위 ‘신변중’ 성매매 업소 형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업소 형태를 두고 언론에서는 ‘신변중’ 업소, ‘음지로 숨어드는 성매매’로 묘사하면서, 집결지 단속으로 인해 신변중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거나 이 공간에서 여성들의 주체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명의 성판매 여성의 생애에서 보면 이들의 업소들은 기존의 성매매 업소들과 섞여, 그들이 경험하는 다른 방식의 업소형태에 불과하지 그것이 다른 의미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주목할 것은 성판매 여성들 입장에서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키스방은 영업방식의 차이이지 그것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켜주거나 사회적 차별을 더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산업 구조 안에서 단속을 피하려는 업주와 특별한 성서비스를 원하는 성구매자의 이해와 이익이 맞아떨어져 ‘신변중’ 업종을 창출해낸 것이지, 여성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의 업종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